

## 팝업책과 일반평면책에 대한 유아의 읽기 반응 비교\*

이지혜\*\*      최나야\*\*\*

### Young Children's Reading Responsiveness to the Pop-up Books and Regular Picture Books

Lee, Ji Hye      Choi, Na Ya

이 연구는 팝업책과 일반 평면그림책에 대한 만 5세 유아들의 읽기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그림책 제작방식에 따라 유아의 읽기시간, 흥미, 반응, 이해, 회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팝업책과 일반평면책에 대해 모두 높은 수준의, 유사한 정도의 흥미를 보였다. 둘째,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은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에 비해 자발적으로 책을 더 오랫동안 보았고, 그림에 초점을 두는 반응 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은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에 비해 사실적 이해와 회상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독립적 그림책 읽기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과 두 유형의 책을 읽은 유아들의 읽기 반응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여 팝업책의 특징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주제어: 팝업책, 평면그림책, 읽기 반응

\* 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제 1저자: 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전공 석사, 현 성빈센트 유치원 교사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E-mail : choionaya@catholic.ac.kr)

## I. 서론

그림책은 서적의 형태 안에 그림과 글이 합쳐져 조화를 이루며 문학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예술적 소산물이다. 유아와 성인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끌 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보를 전하기도 하는 그림책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매체이다. 유아는 관습적으로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기에 앞서, 그림을 통해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성인이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된다. 즉, 그림책은 유아의 정서와 언어 발달을 돕고, 경험을 확장시켜 주며, 상상력, 사고력 및 창의력을 길러주고, 독서에 대한 좋은 태도를 발달시켜 준다.

요즘 유아들은 거의 매일 그림책을 접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는 유아의 독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보유하고 있다. 부모들은 유아기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고,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기도 한다(지연주, 최나야, 2012; 최나야, 2011, 2012). 유아들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그림책을 언어, 수, 과학, 사회, 음악, 조형, 정서지능 등에 다양하게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관 내 도서관 및 교실 안에 도서영역이나 언어영역을 마련하여 유아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면서, 교육과정 일과 중에 거의 매일 그림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유향선, 1997; 임영심, 1996; 장은희, 1993; 조부경, 1996; 최윤정, 1998; 하양승, 1995; 홍혜경, 1995). 이러한 그림책 읽기 활동은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축적시키고, 유아가 세상을 이해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책의 이러한 교육적 가치에 따라, 유아의 그림책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어려서부터 그림책을 풍부하게 접한 유아들은 이야기 도식을 형성하게 되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예견할 수 있고, 책의 내용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김현희, 박상희, 1999; Morrow, 1984).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유아의 지각능력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전 조작적 단계, 구체적 조작단계, 추상적 사고 단계 등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경험 내용의 구체성 또는 추상성 수준이 달라져야 하고, 교수매체 역시 발달단계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성인이 유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제시하는가는 그림책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 흥미, 반응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매우 다르므로, 교사는 이야기 제시방법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를 파악하여 어떠한 방법과 태도로 읽어주는 것이 좋은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Flood, 1977).

이야기 제시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된 반면, 그림책의 제작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매우 드물다. 책의 지면을 펼치면 입체적인 형태가 튀어나오는 책을 말하는 팝업책은 그림책의 제작방식에 있어서 가장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팝업책의 역사는 무려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며(장미경, 2000), 현재는 단순한 유아용 놀이책이 아닌 예술작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신혜영, 2007).

팝업책은 어린이 독자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책 읽기를 유도할 수 있다(신혜영, 2007). 구체적으로, 그림책의 팝업 기법이 갖는 효과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공인

숙, 김영주, 최나야, 한유진, 2013). 첫째, 독자에게 호기심과 흥미, 기대감을 준다. 둘째, 한정된 지면을 확대시켜 배경이나 실제 공간을 넓혀 준다. 셋째, 그림에 입체감과 원근감을 부여한다. 넷째, 2차원의 그림에 비해 3차원의 입체를 구현함으로써 실제에 가까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이야기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구사하여 글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팝업책의 기대효과일 뿐, 실제로 어린 독자들의 인식을 통한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팝업책이 뛰어난 시각효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입체적 움직임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공간개념 등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신혜영, 2007; 이기진, 2007; 이정희, 2005)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이 팝업책의 기법에 초점을 두었을 뿐, 이 유형의 그림책에 대한 유아들의 읽기 반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3세의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선구적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그림이 그려진 그림책에 비해 팝업 효과를 포함한 그림책이 어휘와 내용 학습 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Tare, Chiong, Canea, & DeLoache, 2010).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영유아가 구체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내용을 이중표상하지 못하며, 팝업 효과 조작을 통해 주의를 빼앗기기 때문에 팝업책의 학습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DeLoache, 2000; DeLoache, 2002; Tare et al., 2010). 그렇다면, 혼자서 그림책을 볼 수 있고 인지적으로도 더 성장한 유아들은 팝업책을 어떻게 보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연구는 그림책을 영유아를 위한 학습의 매체로 한정하여 접근하였으나, 그림책의 기능을 더 폭넓게 바라보고 그에 대한 유아의 다양한 반응을 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팝업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아들의 읽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용이 동일하나 팝업 기법이 사용되지 않은 일반평면책과의 비교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작방식에서만 차이가 나는 동일한 내용의 팝업책과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결과를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팝업책 읽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책의 장르, 이야기 전달매체 및 제시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보다 일반적인 연구들을 통해 읽기 결과의 하위 요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그림책 장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5세 유아들은 전래동화(신현숙, 2000; 현은자, 김세희, 1996) 또는 환상 그림책(강은진, 1997; 강은진, 현은자, 1998; 김양선, 1997; Stephanie, 1995)을 선호하여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들 중 여아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남아는 폭력적이며 무서운 이야기를 더 선호하여 성차가 나타났다(권기남, 1999).

다음으로, 이야기의 제시방법에 따라 유아들의 이해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연구들(이유선, 1990; Holmes, 1987; Levin & Lesgold, 1978; Yveta & Barbara, 1986)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2, 3세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며 낭독할 때보다 인형극 비디오로 제시했을 때 더 높은 이해를 보였다(김효영, 200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 인형동화, 그림책을 제시하여 이해의 차이를 알아본 이유선(1990)은 그림책보다는 퍼펫동화, 구연동화가 이해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Pezdek과 Hartman(1983)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방법과 그림을 함께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시방법을 비교한 결과, 그림과 함께 제시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

고하고 있다. 또한, 유아들에게 녹음기, Slide, TV 등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준 경우보다 교사가 개별적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구연하여 이야기를 들려준 경우에 유아가 더 높은 이해를 나타냈다는 연구들(권영례, 1986; 이유선, 1990; 조영미, 1984)이 있다. Levin과 Lesgold(1978)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이해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교육기관에서의 이야기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제시방법에 따라 이야기를 듣는 태도나 효과에 차이가 나타남을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일반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각각 읽은 두 집단의 만 5세 유아들은 이야기 이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태연, 2014). 그러나 전자책의 기법과 관련된 연장선상의 연구(Kim & Yi, 인쇄중)에서, 책의 내용과 관련된 자극을 접한 유아들은 무관한 자극을 경험한 유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 이해를 보였다. 특히 하위 요인 중에서 회상, 추론이 아닌 재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내용이 같은 종이책과 전자책이라는 매체의 차이 자체는 이해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지만, 추가되는 움직임 등의 자극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유아의 이야기 이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유아들이 어떤 장르의 그림책을 더 좋아하는지, 또는 특정 그림책을 읽었을 때 이해의 양상이 어떠한지, 즉 선호와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팝업책을 통해 입체적인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읽는 것과 일반적 제작방식의 평면그림책으로 이야기를 읽는 것이 유아들에게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제작방식의 그림책에 대한 읽기 반응을 보다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유아들의 읽기시간,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같은 내용을 가진 두 판형에 대한 유아의 읽기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판형에 대한 읽기시간이 더 긴지, 단순히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 구체적인 책의 유형에 대한 흥미는 어떠한지, 책의 요소에 대해 보이는 언어적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회상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일반평면책에 비해 팝업책이 지닌 특성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작방식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이러한 비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여 보다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 내하고자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스스로, 그리고 단독으로 그림책을 보는 행동이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을 통한 교육이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에만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취학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읽기 발달을 보이는 만 5세 유아들이 혼자서 그림책을 보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그림책의 제작방식에 따른 반응 차이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팝업책에 대한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연구를 통해 팝업책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그림책 읽기시간, 흥미, 반응, 이해, 회상 간에 상관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그림책의 제작방식(팝업책과 일반평면책)에 따라 유아의 읽기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 2-1) 팝업책 또는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읽기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2-2) 팝업책 또는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흥미에 차이가 있는가?

- 2-3) 팝업책 또는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언어적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2-4) 팝업책 또는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2-5) 팝업책 또는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회상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 소재의 S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남아 19명, 여아 23명 총 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아버지의 95.23%, 어머니의 88.10%가 대졸자)과 거주지역을 고려했을 때 대상 유아의 가정은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취학을 2-3개월 앞둔 상태로, 연령은 5세 10개월부터 6세 11개월 사이에 분포하였다.

유아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연구 도구인 두 권의 그림책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는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집단 구분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기본적 읽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휘력 검사와 단어 읽기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 유아들은 모두 스스로 단어 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짝진 두 집단 설계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점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단어 읽기 능력보다는 어휘력이 그림책 읽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되어, 두 가지 중 어휘력을 먼저 고려하여 유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림 어휘력 검사의 백분위수 결과가 100%인 유아들은 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짝짓고, 백분위수가 100% 미만인 유아들은 백분위수 순서대로 짝지어 두 집단에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팝업책 집단은 남아 9명, 여아 12명, 일반평면책 집단은 남아 10명, 여아 11명으로 구성되었다.

### 2. 연구 도구

#### 1) 그림책

텍스트와 삽화는 동일하나, 도서의 제작형태(일반 평면그림책과 팝업책)만 달리하여 출판된 그림책을 두 권 선정하였다. 이는 한 권만을 이용할 경우, 특정 그림책의 특성이 읽기 반응에 지나치게 반영될 것을 우려하여, 두 권에 대한 반응을 통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아마존, 교보문고, 알라딘 등의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대형서점을 통해 조사하여 팝업책으로 추가 제작된 그림책의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총 128권의 목록 중에서 한글로 출판된 책, 만 5세 유아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의 텍스트를 조건으로 하여 2차로 20권을 추려내었다. 또한 3차 선정을 위해 김세희(2001)의 제안을 고려하여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유아에게 친숙한 인물이나 동물인지, 그림이 클, 내용과 조화를 이루며 유아들에게 매력적인지, 유아들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기승전결의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8권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의 만 5세아 80명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읽어 본 경험이 적은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두 권의 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절차의 선정과정에 대해 아동문학 전공 박사 1인의 안면타당도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선정된 도서는 로렌 차일드의 대표작 시리즈에 속하는 「난 하나도 안 졸려 잠자기 싫어」와 헬렌 옥슨버리가 글을 쓰고 유진 트리비자스가 그림을 그린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이다. 두 권 모두 형식과 내용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그림책에 해당하는데, 특히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는 옛이야기를 패러디한 그림책으로, 유아들이 원형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실험 연구에서는 팝업책과 일반평면책 판형에 따른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유아들의 읽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 검사도구

### (1) 어휘력 검사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PPVT-R)의 문항을 기초로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1995)이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한 그림 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8세 아동의 수용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문항의 구성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어휘들이다. 총 112문항으로서 연령별로 시작 문항이 달라,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들의 경우, 5세 6개월-11개월은 49번, 6세 0개월-5개월은 57번, 6세 6개월-11개월은 65번 문항부터 시작하며 각 문항 당 1점씩 배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휘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표준화검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5세 6개월-11개월은 .92, 6세 0개월-5개월은 .94, 6세 6개월-11개월 .91로 높다.

### (2) 단어 읽기 능력 검사

최나야(2007)의 단어읽기 검사로 유아들의 단어 해독 능력을 측정하였다. 검사 목록은 2음절의 실제단어와 유사단어 각각 20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단어를 신명조체, 글자 크기 60으로 인쇄하여 명함 크기 카드로 만들고, 각 유형별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게 하였다. 음절별로 빠르게 읽은 글자를 채점하면(0, 1, 2점), 각 단어 유형별 총점은 40점, 전체 점수는 80점이다. 문항의 형식이 모두 동일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실제단어와 유사단어 모두 .99로 높게 나타났다(최나야, 2007).

### (3) 읽기시간

유아가 주어진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읽는 데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유아가 자유롭게 책을 읽는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관찰하였고, 추후에 녹화 영상을 통해 유아가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 읽었음을 보고한 때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기록하였다.

### (4) 그림책에 대한 흥미

유아가 특정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느낀 흥미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유아가 각 그림책을 다 읽었다고 보고한 직후에 “이 책을 읽어보니 얼마나 재미있었니?”, “이 책을 어느 정도로 다

시 읽고 싶니?”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각각 스티커를 활용하여 5점 척도로 나타내게 하였다. 따라서 흥미도 점수는 2-10점의 분포를 가진다.

### (5)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반응 검사

이 연구에서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두 가지로, 그림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과 질문 및 코멘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책을 읽은 유아가 자유롭게 발화한 내용을 전사하여 아래의 두 틀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점씩 부여하였다. 유아의 반응은 두 가지 기준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다.

#### 가)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일반적 반응

Many와 Wiseman(1992)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한 채종옥(1996)의 틀을 사용하였다. 그림책에 대한 아동의 일반적인 반응을 ‘판단하기’, ‘심미적 반응’,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반응’, ‘정보추출식 반응’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판단하기’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유아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고, ‘심미적 반응’은 유아의 상상이나 감정, 이야기에서 좋았던 부분 등을 언급하는 것이다. ‘정보추출식 반응’은 이야기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거나 문학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반응’은 심미적 반응과 정보추출식 반응이 혼합되거나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해당한다.

#### 나) 그림책에 관한 유아들의 질문과 코멘트

Morrow(1990)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한 채종옥(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반응이 ‘이야기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경우’, ‘이야기의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경우’, 또는 ‘그림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 (6) 내용 이해 검사

Morrow(1990)의 질문을 통한 이야기 이해 검사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그림책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아가 그림책을 읽은 직후에 미리 준비한 평가문항을 묻는 방식이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진술된 정보를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사실적 질문(literal question) 10문항,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함축된 정보를 끌어내도록 요구하여 등장인물의 느낌을 해석해보도록 하는 추론적 질문(inferential question) 5문항, 이야기의 내용을 넘어 이야기 속 정보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요구하는 비평적 질문(critical question) 5문항을 통해 유아들의 내용 이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질문 문항을 유아문학 전문가 1인과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2인에게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유아들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이나 질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실적 질문에 대해 정답이면 1점, 부정확한 답이거나 무응답이면 0점으로 처리하였고, 추론적 질문에 대해 이야기의 내용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해석하면 2점, 비교적 관련이 적은 해석은 1점, 부정확하거나 무응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비평적 질문에 대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평가하면 2점, 등장인물의 외모를 근거로 평가하면 1점, 부정확하거나 무응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이해도 점수는 요인별로 0-10점, 총점 0-30점이다.

### (7) 회상하여 다시 말하기 검사

Morrow(1990)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해보기(retelling)’ 방식에서 이야기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도구와, 이를 채종옥(1996)이 번역하여 5세 유아들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유아로 하여금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도록 요청하였다.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 하거나 연결을 못 하는 경우에는 “옛날에-” 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니?” 라는 질문을 하여 유아가 다시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야기를 다시 말하지 못 하거나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 할 때 교사는 단계적으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지?”, “언제 그 일이 있었니?”, “어디에서 있었니?”, “주인공은 무슨 문제를 가졌니?”,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니?” 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회상하여 다시 말하기 검사의 평가 항목은 도입, 주제, 구성, 결말, 순서이며 각 항목에 대해 최저 0점에서 최고 3점을 배정하여 최고점수는 15점이 된다. 유아의 회상 내용 역시 책에서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되, 개연성이 있는 창의적 회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가 회상하여 발화한 내용을 녹음, 전사하여, 단어와 문장의 총 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 3. 연구 절차

본 조사 이전에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휘력과 단어 읽기 능력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에 속하는 유아들의 언어능력이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고, 언어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문자 해독 수준이 낮은 유아는 사전에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두 집단으로 배정된 유아들을 한명씩 동일한 장소(유치원 내 도서실 탁자)에서 만나 그림책 한 권을 읽어보도록 제시하였다. 팝업책 집단의 유아는 팝업책을, 일반평면책 집단의 유아는 일반평면책만을 보게 하였다. 집단별로 절반에게는 그림책1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림책2를 먼저 제시하여 순서에 따른 편의를 방지하였다. 두 번째 책은 바로 다음날 읽도록 하였다. 유아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까지 자유롭게 읽게 하였다. 유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조연구자 1인이 유아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을 하였고, 동영상 기기를 관찰 장소에 고정시킨 후 촬영하여 영상 분석을 통해 읽기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유아가 다 읽었다고 하면, “책을 읽어본 느낌은 어떠니?” 라고 질문하며 책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언어적 반응을 평가하였다. 먼저, “이 책을 읽어보니 재미있었니?” 와 “이 책을 다시 읽고 싶니?” 라고 두 문항으로 질문하고 각각 5점 척도로 스티커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가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할 수 있도록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반응을 증진시켰다. 이를 위해 유아가 하는 말은 그 자리에서 기록하지 않고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사본화하였다.

그림책에 대한 일차적 반응을 수집한 후, 내용 이해 검사와 회상하여 다시 말하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회상하여 말하기의 경우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양의 퍼펫에게 유아가 읽은 내용을 말해 주라고 지시하고 발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3일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회상하여 다시 말하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책에 대한 모든 자료 수집은 첫 번째 책과 하루씩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다.



#### 4. 자료 분석

읽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읽기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였고, 유아의 발화 내용을 전사한 사본을 이용해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을 채점하였다.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각각 평가하여 42명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해에서는 모든 채점 결과가 일치하였고, 반응에서 3명, 회상에서 6명의 경우에만 불일치 판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논의과정에서 모두 해소되었다. 모든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집단 간 동질성 또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 III. 결과 및 해석

이 연구는 팝업책 또는 일반평면책을 본 유아들의 읽기시간,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두 집단의 읽기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집단별 동질성과 두 권의 그림책 자극에 대한 비교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 1. 집단 구분의 동질성 검정 및 그림책 자극 비교

*t* 검정 결과, 팝업책 집단 유아들은 월령, 어휘력과 단어 읽기 능력에서 일반평면책 집단 유아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참조). 이는 팝업책 집단과 일반평면책 집단 유아들의 월령, 어휘력과 단어 읽기 능력 수준이 동질하게 집단 배치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 팝업책 집단과 일반평면책 집단의 동질성 (N = 42)

	팝업책 집단	일반평면책 집단	<i>t</i>
	( <i>n</i> = 21) <i>M(SD)</i>	( <i>n</i> = 21) <i>M(SD)</i>	
월령	77.24(3.46)	76.66(2.91)	.21
어휘력	93.00(11.06)	93.95(9.95)	-.29
단어 읽기 능력	78.86(1.80)	78.57(2.38)	.44

다음으로, 그림책1\*과 그림책 2\*\* 간에 유아들의 읽기 반응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권의 그림책을 구별하여 측정변인 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 그림책 1 : 「난 하나도 안 졸려 잠자기 싫어」. 로렌 차일드 저(2006), 조은주 역(2006). 국민서관.  
\*\* 그림책 2 :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헬렌 옥슨버리 글, 유진 트리비자스 그림(2006), 김경미 역(2006). 시공주니어.

<표 2> 그림책 자극에 따른 유아의 전반적 읽기 반응

(N = 42)

	변인	그림책1	그림책2	t	
		(n = 21) M(SD)	(n = 21) M(SD)		
팝업 책 집단	읽기시간	392.29(193.71)	479.33(192.24)	-1.46	
	흥미	8.29(1.65)	8.48(1.33)	-.41	
	언어적 반응	판단하기	1.00(0.00)	1.00(0.00)	-
		심미적 반응	3.33(.80)	2.67(1.02)	2.37*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반응	1.00(0.00)	1.00(0.00)	-
		정보추출식 반응	1.05(.22)	1.05(.22)	.00
		이야기의 의미에 초점	2.67(.97)	2.90(.77)	-.88
		이야기 구조에 초점	2.05(1.36)	2.38(1.28)	-.82
		그림에 초점	1.00(0.00)	1.00(0.00)	-
	이해	총점	12.10(2.68)	12.00(2.53)	.12
		사실적 질문	6.67(1.85)	5.29(1.85)	2.42*
		추론적 질문	9.19(1.08)	9.52(.75)	-1.16
		비평적 질문	9.71(.56)	9.24(.70)	2.43*
	회상	총점	25.57(2.52)	24.05(2.38)	2.02
		단어 수	50.33(27.49)	63.43(28.64)	-1.51
		문장 수	12.86(5.11)	13.76(4.47)	-.61
		도입	.86(.66)	1.33(.58)	-2.50*
		주제	2.48(.75)	2.52(.75)	-.21
구성		2.57(.60)	2.52(.51)	.28	
결말		2.29(.90)	2.71(.56)	-1.85	
순서		1.67(.58)	2.29(.78)	-2.91**	
총점		9.86(2.52)	11.33(2.50)	-1.91	
일반 평면 책 집단		읽기시간	295.19(186.04)	287.48(113.32)	.16
	흥미	8.95(1.53)	8.62(1.53)	.71	
	언어 적 반 응	판단하기	1.00(0.00)	1.00(0.00)	-
		심미적 반응	3.24(1.30)	3.29(.64)	-.15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반응	.90(.30)	.95(.22)	-.59
		정보추출식 반응	1.05(.22)	1.00(0.00)	1.00
		이야기의 의미에 초점	2.38(1.20)	2.33(1.02)	.14
		이야기 구조에 초점	1.67(.97)	2.05(.92)	-1.31
		그림에 초점	.62(.50)	.38(.50)	1.55
	이 해	총점	10.86(3.10)	11.00(2.24)	-.17
		사실적 질문	6.81(2.02)	7.00(2.24)	-.29
		추론적 질문	8.90(1.34)	9.38(1.43)	-1.11
		비평적 질문	9.33(1.24)	9.19(.87)	.43
	회 상	총점	25.05(2.52)	25.48(3.16)	-.49
		단어 수	62.95(30.66)	77.81(37.31)	-1.41
		문장 수	13.52(3.75)	16.33(5.09)	-2.04
		도입	1.00(.45)	1.62(.50)	-4.24***
		주제	2.48(.81)	2.71(.72)	-1.01
구성		2.67(.48)	2.86(.48)	-1.28	
결말		2.67(.66)	2.90(.44)	-1.38	
순서		1.95(.67)	2.57(.81)	-2.70*	
총점		10.76(2.00)	12.67(2.48)	-2.74**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팝업책의 경우, 반응의 심미적 반응( $t = 2.37, p < .05$ ), 이해의 사실적 질문( $t = 2.42, p < .05$ )과 비평적 질문( $t = 2.43, p < .05$ ), 회상의 도입( $t = -2.50, p < .05$ )과 순서( $t = -2.91,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미적 반응, 사실적 질문과 비평적 질문에 대한 이해에서는 그림책1에서 더 높은 점수가, 도입과 순서에 대한 회상에서는 그림책2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그 밖의 모든 하위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평면책 집단의 경우, 회상의 도입( $t = -4.24, p < .001$ )과 순서( $t = -2.70, p < .05$ ) 및 총점( $t = -2.74, p < .01$ )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책2에 대한 회상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권의 그림책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일부 하위 요인에서만 나타났고, 난이도나 특성의 차이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단일 자극이 아닌 두 권의 그림책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자극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평균값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읽기시간,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읽기 반응의 지표로 살펴본 변인들인 그림책 읽기시간, 흥미, 반응, 이해, 회상 간에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했듯이, 흥미와 이해( $r = .44, p < .001$ )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유아가 그림책이 흥미로웠다고 인식할수록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해와 회상( $r = .34, p < .01$ )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그림책을 읽은 직후에 높은 내용 이해도를 보인 유아가 시간이 지난 후에 회상도 더 잘 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읽기시간, 반응과 상관을 보인 변인은 없었다.

<표 3> 읽기시간,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 간의 상관관계 (N = 42)

	읽기시간	흥미	반응	이해	회상
읽기시간	-				
흥미	.10	-			
언어적 반응	.18	.01	-		
이해	.09	.44***	.07	-	
회상	.12	.16	.02	.34**	-

\*\* $p < .01$ , \*\*\* $p < .001$ .

## 3. 팝업책과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읽기시간,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 차이

### 가. 집단별 읽기시간 비교

t 검정 결과, 두 집단의 그림책 읽기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3.78, p < .001$ ). <표 4>에서 보듯이, 팝업책 집단이 일반평면책 집단보다 더 긴 시간동안 그림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집단별 읽기시간 비교 (N = 42)

	팝업책 집단	일반평면책 집단	t
	(n = 21)	(n = 21)	
	M(SD)	M(SD)	
읽기시간(초)	435.81(195.63)	291.33(152.19)	3.78***

\*\*\* p < .001

**나. 집단별 흥미 비교**

팝업책 집단과 일반평면책 집단의 그림책에 대한 흥미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10점이 최고 점수임을 고려할 때, 두 집단이 각각 8.38, 8.79점의 흥미도를 보고한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대상 유아들이 그림책의 제작방식과 상관없이, 두 권의 그림책 자극에 대해 높은 흥미를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집단별 흥미 비교 (N = 42)

	팝업책 집단	일반평면책 집단	t
	(n = 21)	(n = 21)	
	M(SD)	M(SD)	
흥미	8.38(1.48)	8.79(1.52)	-1.24

**다. 집단별 언어적 반응 비교**

언어적 반응의 하위 요인인 판단하기, 심미적 반응,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반응, 정보추출식 반응, 이야기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반응, 이야기 구조에 초점을 두는 반응과 전체 흥미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에 초점을 두는 반응에서는 (t = 6.40,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팝업책 집단이 일반평면책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이 일반평면책을 읽은 비교집단에 비해, 읽은 직후에 그림과 관련된 반응을 더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집단별 언어적 반응 비교 (N = 42)

	팝업책 집단	일반평면책 집단	t
	(n = 21)	(n = 21)	
	M(SD)	M(SD)	
판단하기	1.00(.00)	1.00(.00)	-
심미적 반응	3.00(.96)	3.26(1.01)	-1.21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반응	1.00(.00)	.93(.26)	1.78
정보추출식 반응	1.05(.22)	1.02(.15)	.58
이야기의 의미에 초점	2.79(.87)	2.36(1.10)	1.98
이야기 구조에 초점	2.21(1.32)	1.86(.95)	1.43
그림에 초점	1.00(.00)	.50(.51)	6.40***
총점	12.05(2.58)	10.93(2.67)	1.95

\*\*\* p < .001

**라. 집단별 이해 비교**

이해의 세 하위 요인 중, 사실적 질문( $t = -2.09, p < .05$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평면책 집단이 팝업책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텍스트에 명시된 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이 더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추론적 질문, 비평적 질문과 이해 총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7> 집단별 이해 비교 (N = 42)

	팝업책 집단	일반평면책 집단	t
	(n = 21)	(n = 21)	
	M(SD)	M(SD)	
사실적 질문	5.98(1.96)	6.90(2.11)	-2.09*
추론적 질문	9.36(.93)	9.14(1.39)	.83
비평적 질문	9.48(.67)	9.26(1.06)	1.11
총점	24.81(2.54)	25.26(2.83)	-.77

\* $p < .05$

**마. 집단별 회상 비교**

t 검정 결과, 회상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05, p < .05$ ). 일반평면책 집단( $M = 11.71, SD = 2.42$ )이 팝업책 집단( $M = 10.60, SD = 2.59$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도입, 주제, 구성, 결말, 순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요인에서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총점이 합산되었을 때,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이 더 풍부한 회상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분석한 회상하는 단어 수와 문장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집단별 회상 비교 (N = 42)

	팝업책 집단	일반평면책 집단	t
	(n = 21)	(n = 21)	
	M(SD)	M(SD)	
단어 수	56.88(28.50)	70.38(34.56)	-1.95
문장 수	13.31(4.77)	14.93(4.64)	-1.58
도입	1.10(.66)	1.31(.56)	-1.61
주제	2.50(.74)	2.60(.77)	.77
구성	2.55(.55)	2.76(.48)	-1.90
결말	2.50(.77)	2.79(.57)	-1.93
순서	1.98(.75)	2.26(.80)	-1.69
총점	10.60(2.59)	11.71(2.42)	-2.05*

\* $p < .05$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 42명을 대상으로 팝업책과 일반 평면그림책 읽기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그림책 제작방식에 따라 유아의 읽기시간,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림책의 제작방식이 유아 독자에게 지니는 의미를 실제적인 수준에서 밝히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도서 선정, 비치, 및 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내·외에서 이 연구와 같은 주제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연구 결과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나, 다음과 같이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그림책 읽기시간, 흥미, 언어적 반응, 이해, 회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흥미와 이해, 이해와 회상 간에 각각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그림책에 대해 흥미를 느낄수록 내용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고, 이해를 잘 한 경우 내용의 회상도 더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책을 읽는 유아의 책에 대한 흥미가 클수록 보다 집중하여 책을 읽게 되므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나 부모가 그림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문학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김현희, 1999),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흥미가 이해를 도우며, 이해가 잘 될 때 기억 또한 지속된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제시하는 성인들은 학습을 위한 교육적 내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책을 선정하고, 이야기의 제시방법에 있어서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평면책에 비해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이 더 오랫동안 책을 보았다. 이는 일반평면책과는 차별화되는 팝업책의 특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을 읽는 유아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팝업책을 보는 유아들은 대부분 각 지면에 표현된 팝업 효과를 꼼꼼히 살펴본 후 글을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고, 한 가지의 팝업 효과를 여러 번 조작해 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연구 대상 유아들이 연구 도구인 그림책을 처음 접했고, 다른 팝업책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팝업을 조작하는 기술이 서툴렀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팝업책 집단과 일반평면책 집단 간에 책에 대한 흥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조병희(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유아들이 팝업책에 큰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면서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일반평면 그림책에 비해 팝업책을 다시 보고 싶은 책으로 더 많이 선택하였다는 관찰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위의 연구자는 유아가 팝업 효과를 직접 조작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팝업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형태의 그림책이 유아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일반평면 책에 비해 집중력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허두량(2011)의 연구에서도 팝업책을 활용한 수업 후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팝업책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우므로 수업에 더 적용하기를 바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팝업책의 흥미성이 부각되었으나, 유아들에 대한 이 연구에서는 일반평면책에 비해 팝업책의 흥미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두 집단 유아들 모두 일반평면책과 팝업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었고 책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유아가 두 가지 유형의 책을 모두 경험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유형만을 읽고 흥미를 평가한 것이고, 본 연구의 도구인 「난 하나도 안 졸려 잠자기 싫어」와 「아기 늑대 세 마리 와 못된 돼지」가 모두 유아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 문항만으로 흥미도를 파악한 제한점도 있다. 따라서 그림책에 대한 읽기반응 중 흥미에 초점을 맞춘 후속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그림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보다 확대된 문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림책의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에 대해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의 90% 이상이 구체적인 팝업 효과를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은 마지막 장면 외에도 다양한 장면을 꼽아, 흥미로웠던 장면에 대한 반응이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팝업책과 일반평면책 간에 전반적인 흥미의 차이는 없으나, 세부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책의 제작방식에 따라 유아들의 흥미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언어적 반응의 경우 대부분의 하위 요인에서는 팝업책 집단과 일반평면책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림에 초점을 두는 반응 면에서 팝업책 집단이 일반평면책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작은 것보다 큰 것, 불분명한 것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것, 정지된 것보다 움직이는 것, 그리고 롱 쇼트(long shot)보다 클로즈업(close up)등이 어린이의 시선과 관심을 끈다고 본 유동관(2001)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즉,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이 팝업의 다양한 효과들로 인해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에 비해 그림책의 그림 표현에 대해 더 강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일반평면책 집단이 팝업책 집단보다 사실적 질문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였다. 추론적 질문, 비평적 질문에 대해서는 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책에 포함된 효과적 그림 요소가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다. 움직이는 그림책, 구연동화, 그림책을 제시하였을 때 만 3, 4, 5세 유아들 모두 움직이는 그림책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정옥, 1998; 박영란, 2000; 이형아, 1992). 또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림책 내용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 Judy(1991)의 연구와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팝업 기법에 초점을 둔 경우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이 한 곳에 연결되어 제시된 텍스트를 페이지별로 읽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팝업책에서는 그림의 팝업 효과를 위해 내용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제시되거나 그림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아들이 대부분 글과 그림을 오가며 특정한 순서 없이 본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적 질문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진술된 정보를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과 그림에 주의가 분산된 팝업책 집단보다 글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일반평면책 집단이 이 유형 질문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다.

Meringoff(1980)는 유아들이 팝업책을 다룰 때는 그림책의 내용보다 그림에 집중하며, 반면, 상대적으로 더 한정적이고 적은 시각적 정보가 제공된 그림책을 볼 때 언어 자극에 더 많은 주의 집중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팝업책이 어린이의 시선을 유도하여 내용과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반면, 방향성과 리듬감을 느낄 수 없을 경우에는 산만해지거나 따분해질 수 있다는 유동관(2001)의 주장도 본 연구자들의 해석을 지지한다. 만 2, 3세아들을 대상으로 한 Tare 등(2010)의 연구에서, 일반평면책에 비해 조사를 많이 요구하는 팝업책을 본 경우 영유아의 학습 효과가 더 낮게 나타난 결과도 이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함축된 정보를 끌어내도록 요구하여 등장인물의 느낌을 해석해 보도록 하는 추론적 질문과, 이야기의 내용을 넘어 이야기 속 정보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 보도록 요구하는 비평적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이해에서는 일반평면책 집단과 팝업책 집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자책을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김태연, 2014; Kim & Yi, 인쇄중)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종이책의 내용을 전자책의 형식으로 옮겨놓기만 했을 때는 만 5세 유아들의 이해도가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적 자극과 무관한 자극을 추가했을 때 후자의 경우는 낮은 이해도로 이어졌다. 이 차이는 재인에서 나타났고, 회상과 추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정리하면, 지면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는 그림책이 제작방식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일반평면책을 본 유아들이 팝업책을 본 유아들보다 더 높은 이야기 회상 수준을 보였다. 비록 도입, 주제, 구성, 결말, 순서의 하위 요인에 대한 회상과 회상에 사용된 단어수와 문장수에서는 통계적 유의 수준의 차이가 없었으나, 요인별 차이가 모여 전체 점수상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연구문제1에서 이해와 회상 간의 상관성이 나타났고,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의 사실적 이해가 팝업책 집단에 비해 높게 난 것과 연결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일반평면책 집단의 유아들은 집약된 텍스트를 읽어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므로, 추후에 이야기를 회상하여 다시 말하는 과제에서 더 명확한 전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아의 이야기 이해와 회상 간의 관련성을 밝힌 콕다정(2002)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유아들은 팝업책과 일반평면책에 대해 모두 높은 수준의, 서로 유사한 흥미를 보였다. 이는 그림책 자체의 수준이 높으면 자극적인 효과가 없어도 어린 독자들이 선호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팝업책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자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은 일반평면책을 유아들에 비해 자발적으로 책을 더 오랫동안 보았고, 그림에 초점을 두는 반응 수준이 더 높았다. 각 유아가 두 가지 유형의 책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유아들이 팝업 효과에 매료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유아에게는 팝업책이 읽기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좋은 매체가 될 것이다. 또한 팝업기법을 활용한 북아트나 미술교육의 전망도 밝다고 본다.

반면에, 일반평면책을 읽은 유아들은 팝업책을 읽은 유아들에 비해 사실적 이해와 회상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자극적인 효과가 없는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이야기의 흐름과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 결과는 팝업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등 다른 제작방식의 그림책에 대해서도 연결될 수 있다. Tare 등(2010)도 그림책에서 조작이 적을수록 영유아의 학습 효과가 높음을 증명한 바 있다. 팝업책을 포함해 움직임의 요소가 가미된 책뿐 아니라, 증강현실기법의 그림책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책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상적인 기술과 기법만이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책의 내용과 거리가 먼 조작은 유아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개발자나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팝업책은 입체적 제작방식에 따라 독자가 손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어 유아들의 조작적 행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책 자체와 읽기 행동에 흥미를 느끼게 하며, 지면을 확대시켜 이야기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한다. 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동일한



이야기도 책의 제작방식에 따라 독자의 차별화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림책을 비치할 때,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팝업책이 지닌 특성을 잘 살려 유아교육과정에 잘 통합될 수 있는 팝업책을 선택하고, 집단 크기에 맞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만 5세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고, 독자의 연령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이나 성별 등에 따라 팝업책 자료가 이해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정민이, 2006). 즉,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림책 제작방식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아의 특성 변인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연구도구인 그림책을 접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팝업책의 경험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비교집단 설정을 위해 유아들의 어휘력과 단어읽기능력을 사전에 측정하였으나, 그 밖의 인지적 요인은 통제하지 못하였고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유아의 읽기유창성이나 이해력 등의 인지적 변인과 함께 최근에 가정에서 경험한 책 읽기 등의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고, 표본을 확대해 성별 비교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특히 유아들의 개인적 차이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팝업책과 일반평면책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그림책 장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옛이야기, 판타지, 정보 그림책 등, 장르에 따라 팝업 효과의 구현 가능성이 달라지며, 그에 대한 독자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편의성을 위해 두 편의 그림책만을 선정하여 도구로 이용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편의 책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들이 혼자 스스로 그림책을 읽도록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였다. 비록 단어 읽기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였으나, 모든 유아가 그림책을 읽고 완벽한 수준의 내용 이해를 했는지 파악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팝업책을 유아 혼자서 볼 때와 성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볼 때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닌 의의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에서 개별 유아가 스스로 그림책을 읽는 경우가 많고 풍부한 교실문해환경 조성을 통해 이를 장려해야 하나,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가 유아의 독립적 그림책 읽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팝업책이 지닌 제작적 특수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접근만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이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일반평면책과의 비교를 통해 실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유아의 어휘력과 단어 읽기 능력의 사전 비교를 실시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두 유형의 책을 읽은 유아들의 반응을 다방면에서 비교하였다. 즉, 유아의 읽기시간, 흥미, 반응, 이해, 회상의 측면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규명하였다. 특히 반응, 이해, 회상의 경우 하위 요인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가려내었다.

신혜영(2007)은 대부분의 팝업책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한국 유아들에게 적합한 팝업책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단순히 흥미 위주보다는 교육적 목적에 알맞은 양질의 팝업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므로, 그러한 팝업책이 개발되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은진 (1997). 환상동화와 사실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 소집단 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진, 현은자 (1998). 환상동화와 사실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 소집단 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9(1), 169-182.
- 공인숙, 김영주, 최나야, 한유진 (2013). **아동문학**. 경기: 교문사.
- 곽다정 (2002). 평가 매체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남 (1999). 유아의 성별 및 기질에 따른 동화 선호도: 낭만적, 폭력적 및 무서운 그림동화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례 (1986). 이야기 제시 방법이 유아의 주의 집중과 이야기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 (2001). 유아를 위한 그림책 비디오에 대한 분석. **어린이문학교육, 창간호**, 83-98.
- 김양선 (1997). 소그룹 그림책 읽기에서 그림책에 대한 5세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그림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정옥 (1998). 동화의 제시방법이 유아의 주의집중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구연, 그림 동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연 (2014). 읽기매체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도 차이: 종이책과 전자책. **아동학회지**, 35(4), 249-262.
- 김현희 (1995). **아동의 문학작품에 대한 반응: 이론적 고찰(탁아연구 II)**. 서울: 양서원.
- 김현희, 박상희 (1999). **유아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 김효영 (2004). 이야기 구조 및 제시 방법에 따른 2, 3세 유아의 이야기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란(2000). 동화제시 방법이 유아의 동화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00). 그림 이야기 장르에 따른 만 3세와 5세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2007). 유아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팝업북의 디자인 연구: 0-4세 유아용 “나의 첫 팝업북” 시리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3(4), 211-221.
- 유동관 (2001). 어린이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포함되고 있는 변형된 형태 연구. **논문집**, 14(1), 747-761.
- 유향선 (1997). 어머니와 교사 개입에 의한 상호작용적 문해 프로그램이 유아의 초기 문해 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진 (2007). 어린이의 창의성과 팝업북의 상관관계. 서울산업대학교 IT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선 (1990). 동화의 제시방법이 유아의 주의집중, 기억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2005). 팝업북을 활용한 미술 교육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아 (1992). 동화의 제시방법과 연령이 유아의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심 (1996). 유아의 동화 표상활동에 대한 지도방안 모색, **유아교육연구**, 16(2), 27-47.
- 장미경 (2000). 이미지와 언어의 액센트-팝업북.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6, 99-120.
- 장은희 (1993). 동화전달 경험이 유아의 이야기꾸미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이 (2006). 중학교 생물 수업을 위한 Pop-Up Book 제작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병희 (2006). 유아의 놀이 도구로서 팝업북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부경 (1996). **문학을 중심으로 한 유아 과학 교육의 통합적 접근: 유아교육 교원 자율연구교재**. 서울: 유아인지교육연구회.
- 조영미 (1984). 동화전달 양식에 따른 이해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연주, 최나야 (2012). 교사와 어머니의 문해신념, 그림책에 대한 인식 및 읽기활동 빈도가 유아와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5-28.
- 채종욱 (1996).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른 유아의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나야 (2007). 음운론적 인식과 처리능력이 4-6세 유아의 한글 단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4), 73-95.
- 최나야 (2011). 유아용 그림책의 이용에 나타난 이중독자구조의 탐색- 만 5세 유아 가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99-118.
- 최나야 (2012). 가정문해환경, 어머니의 문해신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6), 109-131.
- 최윤정 (1998).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환경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양승 (1995). 유아의 이야기 해보기 활동이 이야기 구조 개념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두량 (2011). Pop-Up Book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적 동기와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자, 김세희 (1996). 전래동화와 이솝우화의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연구**, 16(2), 5-25.
- 홍혜경 (1995). 유아 수학학습에 아동문학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색. **교육학연구**, 33(1), 399-423.
- DeLoache, J. S. (2000). Dual representation and young children's use of scale models. *Child Development*, 71(2), 329-338.

- DeLoache, J. S. (2002). Early development of the understanding and use of symbolic artifacts. In U. Goswami (Ed.),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pp. 206-226). Malden, MA: Blackwell.
- Flood, J. E. (1977). Parental styles in reading episodes with young children. *The Reading Teacher, 30*(8), 864-867.
- Holmes, B. C. (1987). Children's inferences with print and pi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1), 14-18.
- Judy, D. (1991). Symbolic functioning in very young children: Understanding of picture and models. *Child Development, 62*(4), 36-52.
- Kim, T., & Yi, S. (In Press). Comprehension by content-related audiovisual feedback in children's story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ational Vision and Robotics*, In Press.
- Levin, J. R. & Lesgold, A. M. (1978). On picture in prose.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26*(3), 233-243.
- Many, J. E., & Wisenman, D. L. (1992). The effect of teaching approach on third-grade students' response to literature.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4*(3), 265-287.
- Meringoff, L. K. (1980). Influence of the medium on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2), 240-249.
- Morrow, L. M. (1984). Effects of study-retelling on young children's comprehension and sense of story structure. In J. Niles & L. Harris (Eds.), *Changing perspectives on research in reading/language processing and instruction*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33) (pp.95-100). Rochester, NY: National Reading Conference.
- Morrow, L. M. (1990). Assess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ory through their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narrative. In L. M. Morrow & J. K. Smith, *Assessment for instruction in early literacy* (pp. 110-133). Englewood Cliffs, NJ: Peading Association, Inc.
- Pezdek, K., & Hartman, E. F. (1983).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Attention and comprehension of auditory visual information. *Child Development, 54*(4), 1015-1023.
- Stephanie, S. (1995). Preschooler's response to picture books in small-group discussions: The role of gen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Tare, M., Chiong, C., Ganea, P., & DeLoache, J. (2010). Less is more: How manipulative features affect children's learning from picture book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5), 395-400.
- Yvetta, G. & Barbara, S. (1986). An investigation of imposed-induced imagery methods on kindergarten children's recall of prose cont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south educational association (ERIC ED 278974).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reading results to two types of picture books, focusing on the features of pop-up books. Children's reading time, interests, responsiveness, comprehension, and recall were compared for pop-up books and regular books with the same st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young children showed similarly high interests in both versions. Second, children from the pop-up books group read for a longer time, and showed a higher responsiveness level in focusing on the illustrations than their counterparts. Third, children who read regular books displayed better comprehension and recall than children who read pop-up books.

▶*Key Words* : *pop-up books, regular picture books, reading response*

논문투고 2015. 08. 15.  
수정원고접수 2015. 10. 14.  
최종게재결정 2015. 10. 17.